

#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10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인쇄 공제조합 태동

인쇄업관련 종사자들의 복지기관인 공제조합이 탄생했다. 인쇄문화시보는 1958년 10월12일(제81호)자에 게재된 기사를 통해 공제조합 설립 건이 인쇄서울지부 8차 총회에서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시보는 공제조합의 태동에 대해 '각 인쇄공장에서 근무하는 인쇄업 종사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이란 회원공장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의 신체적 생활복리를 증진시키고 직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가입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공동 자금을 운용해 얻는 이익은 환수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특히 시보는 이같은 공제조합이 전무했던 현실을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이어받아 인쇄관련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주문했다. 공제 조합의 설립 시기는 상반기(4월)에 처음으로 거론됐다.

## 인쇄업계 조업 중단 위기

1963년 10월은 수입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결국 인쇄업계는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시기였다. 인쇄문화시보는 1963년 10월25일(제192호)자를 통해 용지, 잉크 등 각종 소모품 자재의 급상승으로 국내 인쇄업계가 연쇄적으로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연쇄붕괴에 대해 시보는 ▲사진제판용 필름 ▲화공약품 ▲부식용 약품 등이 부족해 색 분해 공정에 막대한 업무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일례로 제시했다. 특히 시보는 이같은 인쇄업계의 일차적인 붕괴로 인해 동판업종은 아트지의 수급난, 오프셋 업계는 잉크 값의 가격 폭등, 활판인쇄는 드라마트지형지가 부족해 조판을 하고도 지형을 뜰 수 없는 딱한 사정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 제1회 '인쇄인의 날'

1968년 10월9일 신문회관에서 인쇄인들의 한마당 잔치가 거행됐다. 인쇄문화시보(제371호)는 머리 기사를 통해 제1회 '인쇄인의 날'에 대한 의미를 비중있게 다뤘다. 이날 행사에는 인쇄계 원로 및 업계 관련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국 각 시·도지부에서 선발된 유공인쇄인과 전국모범종업원에 대한 표창식이 동시에 거행됐다. 유공인쇄인에는 김낙훈(전 보진재인쇄소 사장)씨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사장은 1911년부터 50년까지 40년동안 오직 국내 인쇄기술의 향상

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보는 김 사장에 대해 지속적인 후배 양성과 함께 시대적으로 맞물린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항거한 인쇄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 ‘인쇄계’ 창간호 발간

‘기술경영융합연구지’를 모토로 인쇄계(대표 안희림) 창간호가 그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인쇄문화시보는 1969년 10월1일자(제394호) 보도를 통해 다른 기간 산업과 비교해 더디게 발전해 가는 인쇄업계의 실상을 다루며 해방 이후 기술·규모면에서는 높은 성장을 이뤘지만 기술경영연구의 종합지를 갖지 못함으로 써 후진국형을 답습하는 국내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국내 업계의 현황과 수출에 대해 정확한 심층 보도가 부족한 현실에서 기술과 경영이라는 모토로 창간된 ‘인쇄계’를 인쇄업종의 유일한 전문지라고 소개하고 있다.

#### 한글필기점활자 개발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글필기점활자를 개발한 업체가 등장했다. 인쇄문화시보는 1970년 10월1일자(제418호)를 통해 신광문화사(대표 임광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글필기점활자를 개발,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광수 사장은 20년 동안 자모조각과 활자 문화 연구에 일생을 바쳐왔으며 국내활자문화에 새로운 전기를 조성한 인물이다. 인쇄문화시보는 한글필기점활자의 개발로 향후 청첩장이나 연하장 등에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존의 활자체로는 글자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임 사장의 말을 인용해 새로운 활자 문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 인쇄용지 품귀 현상

1978년은 내수공급 기피로 인해 인쇄용지의 공급이 현저하게 떨어진 해였다. 인쇄문화시보 1978년 10월16일(제595호)에 보도된 이 내용은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시보는 이 같은 현상을 1면 머리 기사로 다루며 백상지와 아르지 등을 주로 이용해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시보는 한국제지 등 국내 굴지의 제지 업체들이 수출호황이라는 시기에 편승해 내수 공급을 억제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백상지와 아르지뿐만 아니라 감광·미색모로·엠보싱지 등 기타 다른 용지에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글신문전용 자동사식기 개발

한국일보 전산팀에 의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글 신문전용 자동사식기가 개발됐다.

인쇄문화시보 1979년 10월16일(제619호)자에 실린 이 보도는 ‘한글인쇄의 기계화에 서광이 비친다’라는 문구를 통해 한글의 자동 문선과 식자를 표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보는 한글의 날 직후 발표된 이 사식기에 대해 역사·시기적으로 의미있는 날임을 강조한 뒤 한글과 한자 혼용의 우리 글도 자동화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인쇄업의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한국일보 전산팀을 호평했다. 이 자동사식기는 1978년부터 작업에 착수해 1년9개월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장홍일 기자〉